



공동체 소식



연중 제 16주일

아버지, 파스카를 경축하는 이 주일에, 저희가 교회에 함께 모여,
말씀과 생명의 빵 안에 계시는 성자를 모시오니,
참된 예언자요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기쁨의 샘에 이르게 하소서.



7월 기도지향

- 정연숙 막달레나 가정
- 정한조, 정지현 막달레나 가정

평화신문 홍보

- 일시 : 7/19(일) 중심미사
- 담당 : 김영춘 베드로 신부님(평화신문 미주지사장)
- ☞ 먼 길을 마다 않고 와 주신 신부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평화신문 구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어르신 친교 모임

- 일시 : 7/26(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회관

Fr. Kapaun Celebrating Mass

- 일시 : 8/1(토) 오후 7:15
- 장소 : Prairie Star Ranch Retreat Center(Williamsburg)
- ☞ Kapaun 신부님은 캔사스 출신으로, 6.25 한국전쟁에 군종신부로 참전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북한군에게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억류되었다가 35세의 나이로 돌아갔습니다.

기타

- 이번 주일(7/19) 중심미사 후, 평협 회의 있습니다.
- 주일학교 물놀이(7/18)에 수고해 주신 교육부와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매 주일 중심미사 후, 총구역회와 자매님들의 봉사로 공동체 애찬이 이루어집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더 크신 자애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 올해도 캔사스시티 한인회 주최, 광복절기념 소프트볼 대회(8/15, 토)가 열립니다. 작년의 우승에 힘입어 올해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수한 베드로 ☎ (913) 707-8141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54	217	180/154	35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예찬 미카엘 차민서 임마누엘	정병훈 보니파시오 김준영 요셉
차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예찬 미카엘	안광민 야고보 고평원 프란치스코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 가타리나	김태중 예레미아 김시연 엘리사벳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차호섭 요셉 최선윤 마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최선윤, 김계숙, 조경희
차주	회관 / 본당 피자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아,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7/12	78명	364불	1,540불
	김진미, 이내익, 안병환, 김정원, 임창주, 홍순익, 차호섭, 박재천(총 8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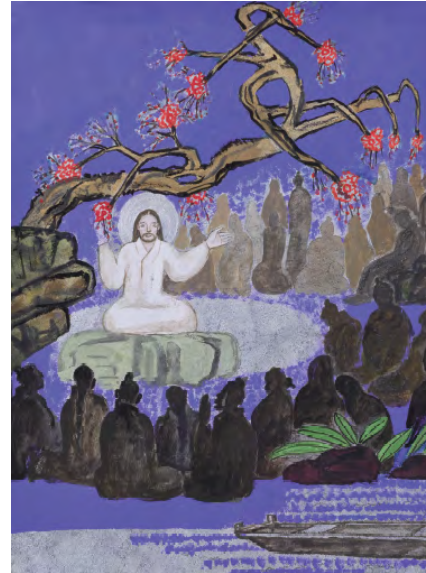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이며, 땅을 가꾸고 돌보라는 주님의 명에 따라 생명을 싹 틔우고 기르는 농민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이 세상의 분열과 아픔을 낮게 하시는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평화와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림 묵상

따뜻한 예수님의 손길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께서서는 복음 선포로 바쁜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것을 읽으십니다. 또한 많은 군중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이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은 가엾은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따뜻하게 전해줍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던져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23,1-6

< 나는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세워 주리라. >



주 님 게 서 는 나 의 목 - 자 아 쉬 울 것 없 노 라.

-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누여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 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 ◎
-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것 없나이다. ◎
-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시름은 가시어서 든든하외다 제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향기름 이 머리에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 하외다. ◎
-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리니 오래오래 주님 궁에서 사오리-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2,13-18

<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30-34

< 그들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았다. >

세 마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보통 착한 목자를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이 그림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는 목자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은 구약성경에서부터 많이 사용되었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양 떼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오늘 제1독서는 양 떼를 잘못 인도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합니다.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 떼를 파멸시키고 흩어 버린 목자들! 너희는 내 양 떼를 흩어 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하나님 대신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에 이 비판은 하나님의 원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다시 한데 모아 살던 땅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이 말하는 목자와 양의 비유는 복음서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목자 없는 양의 표상은 지도자 없는 백성을 나타냅니다. 의미적으로 그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안전을 담보해줄 이도 없습니다. 갈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는, 때론 자비를 나타내는 이 표현은 예외적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곧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을 찾고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양들을 위한 목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무엇이 옳은 길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에페소서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고 말합니다. 마치 두 팔을 벌려 십자가 위에서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서로 달랐던,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졌던 이방인과 유대인은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하나의 인간이 됩니다. 이제 하나의 인간이 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 에페소서의 생각입니다.

흩어진 이들을 모으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성령을 통해 살아가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한 것이 예수님의 업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마치 한 인간의 몸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가르침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갈등과 어려움을 피하기보다 그것들을 마주하고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 가톨릭대학 허규 신부 -

주춧돌

제 4 편 가정 성화 제 2장 부모를 공경하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탈출20,12).

【주석】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 직역하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여라.”이다. 인간이 지니는 영광은 그의 실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누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의 중요성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계명에는 늙은 부모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포함된다(주석 성경, 230).

【어록】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대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고 특별한 가계와 민족과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하느님 다음으로, 부모님은 여러분의 첫 번째 은인들이십니다(성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정교서 15항).

- 「신앙생활 보감」, 천주교구 복음화연구소, 2013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 새 땅을 살아가야 한다 캔사스 한인성당, 중남부 성령 봉사회 초청해 ‘성령안에 말씀과 함께’ 피정 가져

【캔사스】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주임 주영길 토마스 신부)는 중남부 성령 봉사회(지도신부 정건석 프란치스코)를 초청해 6월 26일(금) 오후 7시부터 28일(일) 오후 1시까지 2박 3일간 전 신자들을 대상으로 ‘성령안에 말씀과 함께’ 라는 주제로 피정을 가졌다.

캔사스 본당 전례부와 평협 그리고 중남부 성령 봉사회의 봉사자들이 이번 피정을 진행했고, 첫째 날은 미사와 강의, 둘째 날은 찬양, 강의, 치유안수 그리고 마지막 날은 미사로 마무리되었다.

3년 만에 피정을 하게 된 캔사스 본당 신자들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3일간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50여 명의 전 신자가 참여해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정 신부는 강의를 통해 “참된 신앙인은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니 하느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살아가자.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창세기를 비롯 성경의 여러 말씀을 비유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 새 땅을 살아가야 한다. 새 하늘 새 땅은 나 자신 변화의 시작이며 그로 인해 하느님에게로 우리 자신이 거듭나면 지금 이 세상이 하늘 나라가 되고 이 땅이 새 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참가자는 “정 신부 강의를 듣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 회개하고 싶다. 내가 당연하다고 느끼고 행동한 것이 얼마나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강의를 통해 느낀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신의 삶을 고백했다.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성령안에 말씀과 함께’ 피정을 마친 후 참가자와 봉사자

이번 피정을 준비하면서 기상악화로 인해 중남부 봉사자들이 캔사스 본당에 도착하기까지 힘든 점도 있었지만, 캔사스 본당의 전 신자들의 뜨거운 마음과 열정적인 참여로 봉사자와 참가자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며 피정을 마무리 했다.

기사/사진 제공 : 박진연 스텔라

- <평화신문 7월 19일자> -